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에너지파크' 조성

한전 80억 들여 미래 에너지 체험 명소로

서구 27억 투자 공연장·카페 명품공원화

광주 상무시민공원이 에너지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한국전력이 80억원을 들여 '에너지파크'를 조성하고, 서구도 27억원을 투자해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2일 광주시와 서구에 따르면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107억원을 들여 에너지 테마형 명품 공원으로 조성한다.

광주시와 한국전력은 최근 '한전 에너지파크' 최종 대상지로 상무시민공원을 선정했다. 당초 한전이 원했던 서구 풍암동 수공원은 사유지가 많아 별도의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제외됐다.

'한전 에너지파크'는 상무시민공원 내 광역소주제영상관이 있는 상무조각공원에 조성된다. 4만1000㎡ 부지에 80억원을 들여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이는 전시관과 여러 체험시설을 마련한다. 에너지파크 랜드마크인 전시관은 광역소주제영상관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자전거를 타면 생기는 운동에너지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 그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LED조명을 켜는 체험시설 등도 조성된다.

에너지파크는 내년 6월 착공해 2017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한전은 오는 21일까지

'한전 에너지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시는 또 조만간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전 측이 제시한 '한전 에너지파크'라는 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서구도 상무시민공원 관광자원화사업과 한전 에너지 파크를 연계해 명품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서구는 상무시민공원에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광장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야외 카페를 설치한다. 푸드 트럭도 2대가량 들어오고 조각공원 주변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가족 단위 시민들 나들이 장소로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낚고 부식한 철제 조형물도 제거하는 등 조형물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도 마련한다.

25m 도로 탓에 두 개로 갈린 공원을 도로를 없애 하나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구는 도로 폐지로 인한 교통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단계를 거친 뒤 내년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탓에 접근성, 식사, 숙박시설 등 자원과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서구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래 에너지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명품 공원을 조성해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현철기자 cki@kwangju.co.kr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력에 대한 감수성

신형철 칼럼



다시, 폭력에 대해 말해야겠다. 6월 초 이 지면에서 '폭력'이라는 말의 외연(外延,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은 가급적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나는 폭력을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정의해 보려고 했다. '폭력이란? 어떤 사람/사건의 진실에 대해 심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더 심해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택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잠재적/현실적 폭력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서, 그 후로도 자주 폭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12월 1일, 조선대학교 '문화초대석' 강좌에 소설가 한강 씨가 초대되었다. 그는 작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해서 호평을 받은 바 있거니와, 그날의 강의를 그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어느 때와는 달리 조금은 숙연한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나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이제 어느덧 25년이 되었다는 요지의 말을 했는데 그 뒤로도 줄곧 25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행사가 끝난 이후에야 알았다. 2015에서 1980을 뺀 값은 25가 아니라 35다. 물론 실수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따위의 실수를 결코 하지 않을, 할 수 없을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 나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실수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꽃을 피운 듯 밟그레헤진 저 두 뺨을 봐, 난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디가는 더러워.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가수 아이유 씨의 노래 <제제>의 한 대목이다. 학대 받은 아이 '제제'('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캐릭터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제제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비난이 한동안 거셌다. 해석에는 정당성이 없으며 해석은 다양할수록 좋다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터라, 어떤 해석을 두고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해

서는 안 될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이유 씨에게 쏟아지는 비난 자체가 이미 폭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무렵 '수시 모집 면접'에서 한 학생을 만났다. 봉사활동 기록을 살펴보니 '학대 아동 멘토링'을 한 것으로 돼 있었다. 예정에 없던 질문을 던졌다. <제제>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는 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나고, 내 질문이 끝나자마자 그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당황해서 이유를 물었으나 눈물이 멈추지 않아 대답하지 못했다. 겨우 입을 떼기를, 아이들이 생각나서 운다고 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아는 사람이었던가 그런 노래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학생은 아주 어린 정신을 막 꺼내놓는 참이었다. 행여 그 정신에 대한 추궁이 될까봐 질문을 하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때도 한 번 더 들었다. '그렇다고 학대받은 아이들은 아프고 슬프니까 따뜻하게 위로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노래만 불러야만 할까. 그것이 본의 아니게 그 아이들을 앞으로 계속 아프고 슬픈 존재로 머무르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똑같은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모습을 발견해주는 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제의 흥미로운 이중성을 노래한 이유인가 나는 광주민주화운동이 이제 어느덧 25년이 되었다는 요지의 말을 했는데 그 뒤로도 줄곧 25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행사가 끝난 이후에야 알았다. 2015에서 1980을 뺀 값은 25가 아니라 35다. 물론 실수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따위의 실수를 결코 하지 않을, 할 수 없을 세월을 살아온 분들에게, 나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실수도 폭력이 될 수 있다.

"꽃을 피운 듯 밟그레헤진 저 두 뺨을 봐, 난 아주 순진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듯해도 어디가는 더러워. 그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가수 아이유 씨의 노래 <제제>의 한 대목이다. 학대 받은 아이 '제제'('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캐릭터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제제들에 대한 폭력이라는 비난이 한동안 거셌다. 해석에는 정당성이 없으며 해석은 다양할수록 좋다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터라, 어떤 해석을 두고 '좋은 해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해

염전 전기료 20% 할인

전남도, 내년부터

내년부터 염전의 전기요금에 20% 할인될 전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중 FTA 여·아·정협의체'에서 2016년 염전 전기요금의 20% 할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염업 생산자는 2016년부터 연간 약 2억6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전염업이 식품으로 전환된 이후 수산업법에 의해 전염업이 어업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염업 생산을 위한 염전 전기요금은 어민이 적용받는 농사용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았다.

김병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당초 요구했던 농사용 요금 적용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염전 전기요금 할인 적용을 완강하게 거부하던 담당 부처의 양보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 완전한 농사용 요금 적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위안부 소녀상이 쓴 여성폭력 근절 우산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여성폭력 근절을 상징하는 주황색 우산이 놓여 있다. 이 주황색은 유엔이 여성, 여아들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여성폭력 추방주간 '16 일간의 행동'을 표현한다.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여성폭력 근절을 상징하는 주황색 우산이 놓여 있다. 이 주황색은 유엔이 여성, 여아들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여성폭력 추방주간 '16 일간의 행동'을 표현한다.

/연합뉴스

전남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업 500개 육성

2만5000명 고용 창출 기대

전남도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를 육성해 2만5000명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국립목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기업이 수출 30억 달러 달

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벨리(빛가람혁신도시 소재) 연계 정책 ▲국내외 시장 창출 ▲전략적 기술개발(R&D)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4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서 "정부가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남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폐기물에너지 비중은 2013년 68.4%에서 2035년 29.2%로 낮추고 풍력 비중은 2012년 2.2%에서 2035년 18.2%로, 태양광 비중은 2012년 2.7%에서 2035년 14.1%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은 전남도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도 육성할 것을 제시했다. 태양 및 풍

력에너지,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해양 에너지, 신에너지와 에너지 융합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창출, 에너지산업 정책 마련,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 및 연구 지원센터 구축, 스마트에너지 캠퍼스 실증 사업, 에너지 신산업 신기술 실증연구 지원 등 9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육성과 관련 "나주빛가람혁신도시와 영광군,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전기차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및 해외 진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를 통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5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 전형일 : 2016. 1. 5(화)

대학원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5. 12. 7(월) ~ 15(화)
② 전 형 일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6	2015. 12. 18(금) 오전 10시
		목회학과(D.Min.)	2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25	2015. 12. 19(토) 오후 3시
		유아교육학과(M.Ed.)	1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0	2015. 12. 18(금) 오전 10시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2015. 12. 19(토) 오후 3시
		통합예술치료학과(M.A.)	10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2015. 12. 19(토)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10	
음악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20	2015. 12. 19(토) 오후 3시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